백신 부족에 팬데믹 극복 멀어진다

29일까지 전세계 100명당 1명 접종
미국 50개주 백신 부족 호소
EU-영국, 수출 놓고 '국경 갈등'
빈국 2023년까지 접종 어려워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신속 보급에 실패하면서 대유행 종식도 멀어지고 있다.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만큼 백신 접종 역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야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지만 백신 물량이 부족하고 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세계적으로 백신 9410만회분이 접종됐다. 세계인구 100명당 1.2회분가량 접종된 셈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기대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부족이 주된 이유다. 미국 NBC방송은 미국 50개주 전체가 백신부족을 호소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월 31일까지 4993만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3112만회분이 실제 접종됐다. 미국이 주요 제약사에 주문한 백신량이 12억회분임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다. 인구 대비 접종자 비율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떨어진다.

미국은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이 인구의 7.3%로 이스라엘(33.8%)과 아랍에미리트(UAE·29.7%), 영국(12.6%), 바레인(10.9%) 등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보건의료체계가 중앙집중형이 아닌 점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백신 보급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앞서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지역사회 백신 배포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럽도 백신부족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EU는 지난주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와 함께 개발한 백신을 애초 약속한 양보다 적게 납품하겠다고 하자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이 영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가 비판받고 이를 철회했다.

갈등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애초 약속한 양의 절반 정도지만 지난주 제안한 양보다는 900만회분 늘어난 양을 EU에 공급하기로 하고 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영국에 수출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봉합됐다.

유럽은 접종중단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백신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지난 27일 백신부족을 이유로 수도 마드리드에서 접종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수도권 일드프랑스와 북부 오드프랑스, 동부 부르고뉴프랑슈콩테가 1차 접종을 연기했다.

독일도 백신이 부족한데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지난 31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인터뷰에서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전제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만 있다면 제조국과 상관없이 대유행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느리지만 접종이 이뤄지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아프리카에 견줘선 '꿈'같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을 포함한 85개 개발도상국은 2023년까지 광범위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보고서는 "일부 중소득 국가와 대부분 저소득 국가는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의존할 것"이라면서 "부국을 위한 백신 생산과 보급이 늦어지면 코백스를 통한 백신 공급이 늦어져 빈국에 백신이 늦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우리는 러시아를 사랑해. 우리가 러시아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나발니 석방 시위 언론인 60여명 체포" 러시아 기자연맹 성명

구금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60여명의 언론인이 체포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기자연맹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러시아 기자연맹은 "이날 오후 7시(모스크바 시각)까지 불법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언론인의 숫자가 60명에 육박한다"면서 "대부분은 신원확인을 거친 뒤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언론인과 관련해 러시아 기자연맹은 언론인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대응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기자연맹은 또 언론인들에게 시위 현장에서 '언론'이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러시아 기자연맹 회장은 자국 내무부에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을 체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아웅산 수치 구금

총선 불복…"1년간 비상사태 선포"
"최고사령관에 권력 이양"
네피도·양곤 전화·인터넷 불통

미얀마 군부가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들을 실행했다"면서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미얀마군 TV는 또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이 언론에 전한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구금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날 새벽 전격 감행된 쿠데타 이후 국영 TV·라디오 방송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수도인 네피도는 물로 최대 도시 양곤의 인터넷 및 전화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53년 동안 지속한 군부 지배를 끝냈다.

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 26일에는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대변인인 조 민 툰 소장은 선거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역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부는 이후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같은 달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 제도에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수치 고문을 포함해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호주 정부도 이날 미얀마 군부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수치 고문 및 구금된 지도자들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더는 못참아"…유럽 곳곳 코로나 통제 반대 시위

지난 주말 유럽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한 후 방역 체계가 가동된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피로가 높아지는데다, 겨울철 2차 확산으로 통제가 강화되자 불만이 거리로 쏟아졌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지난 31일 중앙역 인근에서 통제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모여들었다. 시위대 중 일부는 벨기에의 축구 클럽 서포터즈였다. 경찰도 SNS를 통해 불법 시위임을 알린 뒤 해산 경고를 무시한 200여 명의 참석자를 체포했다. 벨기에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날 통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수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의 도시에서 일주일 전께 폭력 시위가 벌어지며 200명 가까이 체포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화롭게 전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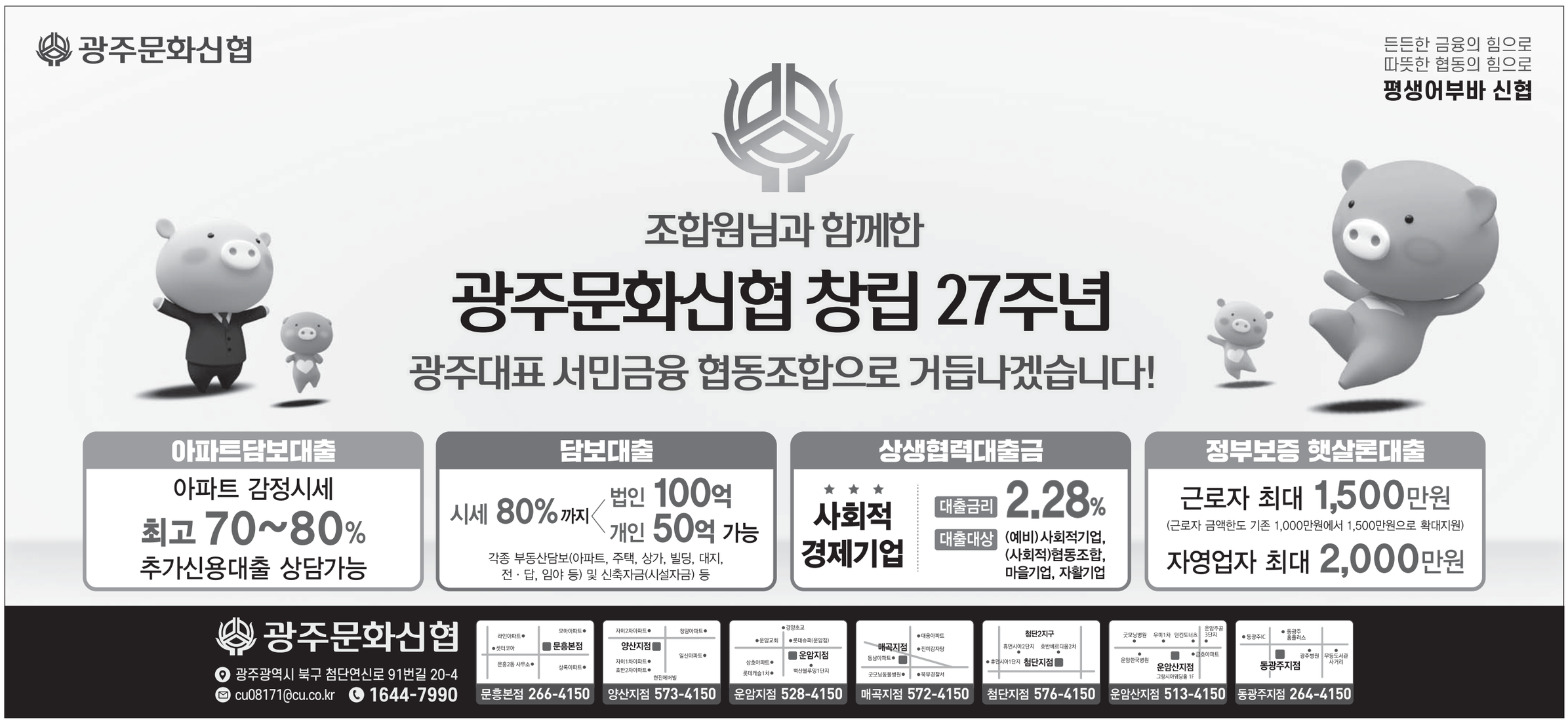
반면 암스테르담 중심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집회가 열려 30여 명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구글 이어 아마존에도 노조 결성되나

창고 직원들 설립 추진 성사 주목

미국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한 창고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유통 대기업 아마존은 그동안 철저한 무노조 경영으로 적어도 미국내에서는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라배마주 창고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아마존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한 우편투표를 오는 8일부터 내달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년간 노조 설립 시도를 막아온 아마존으로서는 새로운 싸움이라고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이번 노조 설립 시도에 대응해 노무 전문 법률 회사를 새로 고용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노조 설립이 근로자들에게 실익이 없는 만큼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저널은 전문가를 인용해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첫 단체협약까지는 수년의 교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소매·도매·백화점노동자조합(RWDSU) 등 노동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업장의 노조 설립 시도가 과거보다 성공적이라며 노조 설립이 성사되면 미국내 아마존 사업장 800여곳에 유사한 흐름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저널은 소개했다. 앞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직원 200여명은 1월 4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노조 출범을 공식화했다. 고연봉을 받는 실리콘 밸리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노조 출범이다. /연합뉴스